물바다, 피바다, 불바다

노 영 한
(본회 전무이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에 대한 질문은 인류가 끝없이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희망을 먹고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시름시름 죽어가거나 아니면 자살을 택하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다. 또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한다. 유기된 영아들이 특별한 질병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높은 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국의 최신 시설의 한 영아원에서 영아들의 사망률이 높아(특별한 이유없이) 간호원들이 하루 10분씩 안아주고 볼을 비벼주고 대화를 해주었더니 영아들이 생기가 돌고 때만 되면 안아달라고 손을 내밀며 활기를 되찾아 건강하게 자랐다고 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다.

종교인들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강조한다. 희망과 사랑이 없이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

정부가 UR협상 이전에 농민들을 안아주고 뺨을 비비고 대화를 나누어 주었더라면 농민들도 생기를 찾지 않았을까? UR협상이 농민들의 희망을 빼어갔으며 농업, 농민이 사랑받는 산업이기 보다는 혐오산업으로 인식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최근의 협동조합이나 정부의 기구 개편과 UR 대책 등이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정부가 농업에 애정을 갖고 있음을 믿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은 느낌이 있고 영적(靈的)이므로 말로만 농업을 지킨다고 해서 사랑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소비자단체들이 농업에 사랑을 느껴 농민과 함께 농업지키기운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 주부들과의 애정관계가 정부의 42조원 지원보다도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들게 된다.

믿었던 자식이 부모를 버리거나 사랑하는 애

> *농민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 UR대책은 결국 농업을 멸망하게 할 뿐이다. 6월말까지 수립되는 UR대책이 어떻게 수립될지 모르지만 농민에게 희망과 애정이 담겨있지 못한다면 지난번 42조 지원을 외쳐도 기뻐하지 않는 농민들에게 본 것처럼 의미가 없어진다.*

인이 변심했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때문에 UR협상이나 최종 이행계획서 제출 등 중요한 문제에서 정부가 농민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증오의 관계로 될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가 조합원이나 회원으로부터 사랑의 대상이 아닌 증오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국의 영아원에서 배우는 것이 지름길일 수가 있다.

남북 실무자 대표 회담이 결렬되어 다시 1년전 원위치로 돌아갔다. 북한대표가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고 전쟁준비가 되어있다는 발언에도 사재기나 큰 동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무감각하거나 북한이 사랑이나 증오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양치는 목동이 이리가 왔다고 여러번 소리치면 정말 이리가 왔을 때 소리쳐도 무감각해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북한의 금강산댐으로 서울은 물바다가 된다고 해서 국민성금으로 평화의 댐을 막았고 전쟁이 발발하면 동족상쟁의 피바다가 된다는 등 그간 면역이 되었는지 이번 북한대표의 불바다 소리를 TV로 직접 보도하였는데도 국민들의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1978년 쇠고기가 처음 수입될 때 쇠고기를 수입하다니 하고 놀랐지만 이제는 당연시 되었고 이제 가격도 10% 인하해서 방출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돼지고기마저 수입하게 되었다.

마늘, 양파 등 양념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농산물이 수입되는 것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양돈은 경쟁력이 있다는 외침이나 경쟁력이 없으니 준비해야 된다는 외침에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이 양돈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흔히들 개방을 두려워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개방을 하지 않으면 이조말엽의 쇄국정책으로 나라가 망한 것을 되풀이하게 된다고 말한다.

금년은 특히 동학혁명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당시 개혁과 개선을 주장한 농민들의 의견이 힘으로 저지되고 부패와 무능의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농민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 UR대책은 결국 농업을 멸망하게 할 뿐이다.

6월말까지 수립되는 UR대책이 어떻게 수립될지 모르지만 농민에게 희망과 애정이 담겨있지 못하다면 지난번 42조 지원을 외쳐도 기뻐하지 않는 농민들에서 본 것처럼 의미가 없어진다.

외국의 농축산물이 수입되어 한국 농촌이 불바다가 된다하여도 농민들은 무감각할 것이고 물바다가 될 터이니 댐을 막자고 하여도 나서지 않을 것이다.